

SK, 의료 · 헬스케어 사업 분리

2011년 1월 라이프사이언스 부문 분사 ... 자생력 강화 첫 단계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가 의료·헬스케어 사업을 담당하는 라이프사이언스 부문을 이르면 2011년 1월1일자로 분사한다.

SK그룹에 따르면, 신 성장동력 분야인 의료 사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본궤도에 진입하는 첫 단계로 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를 분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사업을 확장하려면 분사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룹 차원의 판단”이라며 “분사 이후 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가 홀로서기를 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는 2007년 SK(주)와 SK에너지가 분사되기 전 정유·화학 사업부가 맡고 있었지만 그룹차원에서 성장시킨다는 전략에 따라 SK(주)가 넘겨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최근 SK(주)가 의료기기 제조기업인 메디슨의 인수 경쟁에 뛰어든 것과 맞물려 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의 분사를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메디슨 인수 계획과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분사할 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와 의료 사업을 이미 영위하는 SK케미칼 중 어느 곳이 최종 인수전에 참여할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라이프사이언스 사업부의 주력 분야가 간질, 우울증 치료제 등 중추 신경 계통의 약품으로, 연구비가 많이 드는 특성 때문에 분사 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의료·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27>